

# 오픈엑세스출판에 대한 학술지 편집인의 인식 연구\*

## Editor's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 Open Access Publishing

정경희(Kyoung-Hee Joung)\*\*

### 초 록

본 연구는 국내 학술지 중 상용DB를 통하여 원문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무료로 원문을 공개하는 309종의 학술지들이 어떤 이유로 무료서비스를 선택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술지 편집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이들 무료 오픈엑세스 학술지 편집인의 오픈엑세스에 대한 인식과 지지도 및 지지이유에 대해서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오픈엑세스를 선택한 이유는 학술논문의 무료이용 확대와 인용 확대의지, 해당 학문분야의 국제적 분위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지 편집인들은 오픈엑세스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경우가 약 65%, 지지하는 응답자가 약 75%였다. 지지 이유로는 학술연구 성과 공유, 동료연구자의 이용가능성 확대, 학술지 인지도 향상 등을 제시하였다.

### ABSTRACT

This study surveyed editors of 309 gratis open access journals in Korea in order to examine the reason why they decided to open their journals to the public on the Web. Also this study examined their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 open access publishing. The main reasons of open access publishing in Korea were expansion of free use, increasing citation, and international trends regarding open access in their scholarly fields. Also, 65% of all respondents were aware of the concepts of open access, and 75% supported open access. The reasons of supporting open access were sharing of research results with the public, increasing the availability of peer researchers, and enhancing journal reputations.

키워드: 무료 오픈엑세스 학술지, 편집인 인식, 태도, 분야별 차이, 지지도  
gratis open access journal, editors perceptions, attitudes, field differences,  
approval rating

\* 본 연구는 한성대학교 연구장려금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

\*\*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조교수(khjoung@hansung.ac.kr)

■ 논문접수일자 : 2011년 11월 16일 ■ 최초심사일자 : 2011년 11월 21일 ■ 게재확정일자 : 2011년 12월 6일  
■ 정보관리학회지, 28(4): 183-200, 2011. [http://dx.doi.org/10.3743/KOSIM.2011.28.4.183]

## 1. 서론

오픈액세스가 새로운 학술커뮤니케이션 모델로 제시된 지 약 10년 되었다. 오픈액세스는 기존의 구독기반 학술지의 가격상승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연구성과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된 모델이다. 2011년 11월 기준 DOAJ(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에 등록된 오픈액세스 학술지는 7,261종이며,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1,500여종 중 20%에 해당하는 300여종도 상용 DB가 아니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원문이 공개되어 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특정 학술지는 모든 사람이 무료로 접근할 수 있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되고 어떤 학술지는 접근비용을 지불해야만 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되는 것일까? 또 어떤 연구자는 굳이 무료접근과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학술지에 논문을 기고하고 어떤 연구자는 이용자에게 접근비용을 부과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기고하는 것일까?

연구자가 논문투고 대상 학술지를 선택하는 과정에는 학술지의 권위, 발행시기, 출판가능성, 투고에 관련된 비용, 발행기관의 정책, 연구자 소속기관의 정책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학회 혹은 출판사가 학술지 출판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도 발행기관 정책, 임원진의 견해, 발행기관의 재정, 해당 학문분야의 특성, 외부 지원기관의 지원규모 등 내적 혹은 외적 요인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의 모든 부분이 그렇듯 새롭게 제시된 학술커뮤니케이션 모델도 갑작스럽게 기존의 시스템을 대체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 연구자 혹은 학술지 출판기관을 둘러싼 다

양한 사회, 경제, 문화적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진행될 것이다. 특히 연구자의 인식과 태도는 학술커뮤니케이션 모델의 변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인다. 그동안 국외에서 학자들의 오픈액세스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내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의 오픈액세스 학술지의 편집인을 대상으로 오픈액세스에 대한 인식과 오픈액세스 출판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오픈액세스 학술지 편집인들은 오픈액세스에 대하여 얼마나 인지하고 있고 지지하고 있는가? 지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편집인으로서 오픈액세스에 대한 견해와 개인연구자로서 오픈액세스에 대한 견해가 다른가? 둘째, 편집인들은 발행기관이 오픈액세스를 선택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셋째, 오픈액세스 학술지 운영상 어려움은 무엇인가? 넷째, 위의 사항들이 분야별 혹은 출판기관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가?

## 2. 오픈액세스에 대한 연구자의 인식 연구 동향

### 2.1 연구자의 오픈액세스 수용에 대한 연구 동향

연구자가 생산한 학술정보를 연구자 집단 내의 다른 연구자들과 공유하기 위하여 전달, 배포, 이용하는 과정을 학술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한다(Kling and McKim 1999). Kennan과 Kautz는

학술커뮤니케이션의 한 부분으로서 학술출판 모델을 전통적인 형태, 전자 학술출판, 미래의 학술출판인 오픈엑세스 출판으로 구분한 바 있다. 이 세 개의 모델은 기본적으로 연구자의 논문작성, 출판사의 동료심사를 통한 출판 및 등록, 출판사와 도서관을 통한 배포, 출판사와 도서관의 아카이빙, 연구자들의 연구 및 저술이라는 순환 과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배포채널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전통적인 모델에서 배포는 출판사나 도서관 혹은 색인·초록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전자출판에서는 기존의 역할자들과 더불어 인터넷 웹브라우저, 콘텐츠 수집가, 검색엔진이 배포를 담당하였으며 오픈엑세스 모델에서는 여기에 리포지토리와 블로그, 위키 등이 추가되었다(Kennan & Kautz 2007).

현재 학술출판은 위의 세 가지 모델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자신의 논문을 출판하기 위하여 이 중 어느 하나의 모델을 선택하게 된다. 이중 오픈엑세스 출판모델은 학술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실험중인 모델이다. 학술커뮤니케이션에서 연구자는 시작점이자 최종점이기도 한 주체적 행위자이므로 학술출판 모델에 대한 연구자의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지난 10여년에 걸쳐 오픈엑세스 개념, 오픈엑세스 출판, 셀프아카이빙에 대한 연구자의 인식 및 태도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전 세계의 각 학문분야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Dallmeier-Tiessen 2011; Park 2007; Hess et al. 2007; Rowlands and Nicholas 2005), 특정 학문분야 예컨대 의학분야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Schroter, Tite, and Smith 2005), 특정 지역의 특정 단체 소속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Morris and Thorn 2009), 특정 국가 전 분야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Austin, Heffernan, and David 2008; Kennan 2007), 특정 대학의 교원과 박사과정생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시도한 연구(Park and Qin 2007; Warlick and Vaughan 2007) 등이 그것이다. 또한 기관리포지토리에 대한 연구자의 인식조사 연구로는 전 세계를 각 학문분야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Swan and Brown 2004), 유럽지역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Creaser et al. 2010), 미국 일부 대학의 의학분야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Warlick and Vaughan 2007) 등이 있다. 특히 Xia(2010)는 이러한 기준에 수행된 인식 연구들을 종합하여 오픈엑세스에 대한 학자들의 태도변화 패턴을 연구한 바 있다.

## 2.2 오픈엑세스에 대한 인식연구 결과

이들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진 내용은 오픈엑세스 출판 및 셀프아카이빙 혹은 기관리포지토리에 대한 이해도, 오픈엑세스 개념에 대한 지지도, 오픈엑세스의 문제점, 오픈엑세스 학술지에 출판한 경험, 향후 출판 의향, 출판동기 및 출판하지 않는 이유 등이었다.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조사된 내용들 즉, 오픈엑세스 학술지에 대한 이해도, 출판 경험 및 향후 출판 의지, 출판동기 및 출판하지 않는 이유를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2.1 인지도

인지도는 연구자들이 오픈엑세스 개념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파악한 것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연구자들이 오픈엑세스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한 경우가 약 30%, 약간 알고 있다고 한 경우가 50%였으며(Rowlands and Nicholas 2005) 용어에 친숙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약 65% (Creaser et al. 2010)였다. 이에 비해 모른다고 한 경우가 최소 19%(Rowlands and Nicholas 2005)에서 30%(Swan and Brown 2004),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가 19%(Creaser et al. 2010)였다. 1997년에서 2008년 사이의 인식연구를 종합한 Xia(2010)의 연구는 오픈액세스 출판을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가 초기에는 50% 정도였는데, 2007년도 즈음에는 15% 아래로 줄어들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 2.2.2 출판경험 및 출판계획

출판경험 및 향후 출판의지에 대한 조사결과 출판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응답자의 약 23~34%(Hess et al. 2007)에서 52%(Dallmeier 2011)까지 다양하였다. 또한 향후 출판계획이 있다는 응답자는 16~17%(Hess et al. 2007)였으며, 45%는 향후 3년 이내에 반드시 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적어도 한 개의 논문을 출판할 계획이라고 응답하였다. 계획이 없다고 한 경우도 6%였다(Kennan 2007). Xia(2010)의 연구는 출판경험이 있는 연구자들의 수가 1995년에는 약 3%였는데 2007년에는 약 40%로 점차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동일 기간에 오픈액세스 학술지의 수가 증가한 것에 비하면 출판경험이 있는 연구자들이 상당히 증가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주저하는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오픈액세스 학술지에 대한 출판계획은 일관된 패턴이 없어서 해석이 어렵다고 보았다.

### 2.2.3 출판동기

앞서 기술한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자가 자신의 논문을 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범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 첫째, 접근 및 유통 관련 측면: 무료접근, 출판속도 및 배포속도 증가, 상업적 출판에 반대, 개발도상국의 접근편의성, 광범위한 독자 확보, 구독료 문제해결, 오픈액세스 원칙과 이념 증진, 공공의 선
- 둘째, 학술지의 질적 측면: 오픈액세스 학술지 권위, 높은 영향력, 편집진에 대한 호감
- 셋째, 외적 영향요인: 연구자 소속 기관의 영향, 기금 수여기관의 요구, 동료 영향
- 넷째, 오픈액세스 학술지의 존재: 해당 분야에 오픈액세스 학술지가 있음
- 다섯째, 경력개발: 경력개발, 인용빈도 증가

Xia(2010)의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요인들 중에서 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료접근을 통한 광범위한 독자층 확보이며, 두 번째 요인은 오픈액세스 출판이 기존의 출판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됨으로써 온라인 출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또한 이러한 연구자의 태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분석하였다.

### 2.2.4 미출판 이유

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을 하지 않는 요인들 역시 몇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 첫째, 비용 측면: 출판비용 확보 어려움, 기관지원이 없음
- 둘째, 질적 측면: 학술지 질과 권위 낮음, 구

- 독기반 학술지의 높은 평판, 영향력지수(Impact Factor) 낮음
- 셋째, 오픈엑세스 학술지 존재: 오픈엑세스 학술지 존재여부 모름, 출판할 오픈엑세스 학술지를 찾을 수 없음
- 넷째, 내적요인: 습관, 항상 동일한 학술지에 출판하는 것에 만족함, 익숙치 않음, 과정 잘 모름
- 다섯째, 유통 측면: 제한적 배포, 많이 이용되지 않음, 동료 이용 낮음, 장기간 이용가능성 보장 안 됨, 구독기반 학술지보다 구독자들이 적을 것임, 기존 학술지보다 출판시간이 더 느림
- 여섯째, 제도적 측면: 저작권 침해, 엠바고 기간 불확실, 동료심사 거치지 않은 논문과 섞이는 것에 대한 불안, 저자의 출판비용 부담에 반대함, 오픈엑세스 학술지는 동료심사제가 잘 안 된다고 알고 있음
- 일곱째, 경력: 승진 및 정년보장에 부정적 효과
- 여덟째, 지지: 오픈엑세스 출판에 반대함, 출판물 오픈엑세스 여부와 상관없이 함

Xia의 연구(2010)에 의하면 이러한 미출판 동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첫째, 오픈엑세스 학술지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것, 둘째 학술지의 권위 즉, 영향력지수가 낮고 인용률이 낮은 것이었다.

###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학술지 중 상업적인 DB

를 통하여 원문서비스를 하지 않으면서 인터넷에서 무료로 원문을 공개하는 학술지를 국내 오픈엑세스 학술지라고 명명하였다. 이러한 학술지 리스트를 작성하기 위하여 2011년 5월 9일 기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1,438종을 대상으로 5개 국내 학술지 상용DB(DBpia, KISS, 교보스콜라, E-article, 뉴논문)에서 원문서비스 하지 않으면서 발행기관 홈페이지 혹은 무료원문서비스기관(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기술학회마을, 한국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Synapse)을 통하여 원문을 공개하고 있는 학술지를 조사하여 309종을 선별하였다. 선별 기준은 2010년 발행 학술지 중에서 적어도 1개 호 이상에 수록된 논문을 로그인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로 제한하였다.

이후 이들 학술지 발행기관 홈페이지에서 학술지 편집위원(장) 혹은 발행위원(장)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확보하여 1개 학술지 당 1인에 대하여 설문의뢰를 하였다. 본 설문은 웹 기반 설문지를 활용하여 2011년 8월 한 달 동안 진행하였다.

조사내용은 첫째, 오픈엑세스에 대한 인지도 및 지지도, 지지이유 둘째, 상용DB에서 원문서비스 하지 않는 이유, 원문공개채널 셋째, 발행기관의 오픈엑세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이었다. 설문분석은 PASW statistics 18.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 결과는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여 사회과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수준인  $p < 0.05$ 를 기준으로 상관관계의 유의미성을 판단하였다.

## 4. 분석결과

### 4.1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

설문응답자는 85명으로 회수율 27.5%였다. 응답자가 소속된 학술지 발행기관의 형태는 주로 비영리 학회(80%)였으며, 직업은 교수(89%), 성별은 남성(91%), 연령은 50대(61%), 학회에서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5~10년(40%)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학회에서의 역할은 대부분 편집위원(장)(89%)이었으며, 기타응답자의 경우는 발행인, 운영위원, 발간담당 등이었다. 직업 문항에서 기타에 응답한 경우는 공무원, 변호사, 정부출연기관장, 시간강사 등이었다(〈표 1〉 참조).

### 4.2 오픈엑세스에 대한 인지도

#### 4.2.1 인지도

오픈엑세스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지에 오픈엑세스에 대한 정의를 “학술지 원문을 인터넷상에서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특별한 허가의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제시한 뒤 이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그 결과 매우 잘 알고 있거나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합쳐서 64.7%였다(〈표 2〉 참조). 이에 비해 전혀 모르거나 모르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9.4%에 불과하였다. Xia(2010)는 2007년 즈음의 연구자들의 오픈엑세스에 대한 인지도 조사에서 이를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가 15% 미만이라고 하였는데, 이에 비하면 본 설

〈표 1〉 설문응답자의 특성

구 분	특성	응답자수(%)	구 분	특성	응답자수(%)
학술지 분야	인문	20(23.5)	발행기관 유형	비영리 학회	68(80.0)
	사회	14(16.5)		대학 내 기관	9(10.6)
	자연	11(12.9)		정부산하 기관	8(9.4)
	공학	11(12.9)	합계		85(100)
	의약학	22(25.9)	직업	교수	76(89.4)
	농수해	4(4.7)		연구원	4(4.7)
	예술체육	2(2.4)		기타	5(5.9)
	복합학	1(1.2)	합계		85(100)
합계		85(100)	학회 임원 경력	5년 미만	15(17.6)
학회에서 역할	편집위원(장)	76(89.4)		5~10년	34(40)
	출판위원(장)	2(2.4)		11~15년	19(22.4)
	총무이사	1(1.2)		15년 이상	17(20)
	기타	6(7.1)	합계		85(100)
합계		85(100)	연령	30대	1(1.2)
성별	남자	77(90.6)		40대	26(30.6)
	여자	8(9.4)		50대	52(61.2)
합계		85(100)		60대 이상	6(7.1)
				합계	

〈표 2〉 학문분야 및 발행기관 유형에 따른 오픈엑세스 인지도

(응답자수(%))

구분	인지도	인지도					전체
		매우 잘 알고 있음	알고 있는 편	보통	잘 모르는 편	전혀 알지 못함	
학문 분야별	인문	2(10.0)	4(20.0)	11(55.0)	3(15.0)	0(0)	20(100)
	사회	3(21.4)	3(21.4)	4(28.6)	4(28.6)	0(0)	14(100)
	자연	1(9.1)	8(72.7)	2(18.2)	0(0)	0(0)	11(100)
	공학	3(27.3)	4(36.4)	3(27.3)	0(0)	1(9.1)	11(100)
	의약학	8(36.4)	12(54.5)	2(9.1)	0(0)	0(0)	22(100)
	농수해	2(50.0)	2(50.0)	0(0)	0(0)	0(0)	4(100)
	예술체육	1(50.0)	1(50.0)	0(0)	0(0)	0(0)	2(100)
	복합학	1(100.0)	0(0)	0(0)	0(0)	0(0)	1(100)
발행 기관별	비영리 학회	17(25.0)	31(45.6)	17(25.0)	2(2.9)	1(1.5)	68(100)
	대학 내 기관	2(22.2)	2(22.2)	3(33.3)	2(22.2)	0(0)	9(100)
	정부산하 기관	2(25.0)	1(12.5)	2(25.0)	3(37.5)	0(0)	8(100)
	계	21(24.7)	34(40.0)	22(25.9)	7(8.2)	1(1.2)	85(100)

문응답자의 인지도가 조금 더 높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내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오픈엑세스에 대한 인지도는 5점 척도 기준으로 보통보다 낮은 약 2.7정도였던 것(조종민 2007)에 비하면 매우 높은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이미 국내에서 오픈엑세스를 실시하고 있는 학술지의 편집진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일대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이 결과는 오히려 이미 무료로 원문을 공개하고 있는 학술지임에도 불구하고 오픈엑세스라는 개념에 익숙하지 않은 편집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변수간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오픈엑세스에 대한 인지도는 응답자가 소속한 학문분야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5$ ). 즉, 의약학, 자연과학, 공학, 농수해양학 분야 응답자들의 경우 약 64%~100%가 오픈엑세스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거나 잘 알고 있는 편이라고 응답한 반면,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 응답자들의 경우 그보다 훨씬 적은

30%~43%정도에 불과하였다. 또한 응답자 중 비영리 학회 학술지 편집인들(71%)이 대학 내 기관(44%)이나 정부 산하기관 발행 학술지 편집인들(37%)보다 오픈엑세스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더 많았다(〈표 2〉 참조).

#### 4.2.2 지지도 및 지지 이유

오픈엑세스의 개념 즉, 학술논문을 무료로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고 이용시점에서 권리자로부터 특별한 허가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매우 지지하거나 지지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각각 37.6%(32명)로 모두 75.2%,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8.8%(16명), 지지하지 않는다 3.5%(3명), 전혀 지지 하지 않는 경우는 2명(2.4%)이었다. 즉, 오픈엑세스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응답자가 약 75.2%였다. 앞서 언급한 국내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조종민 2007)에서는 오픈엑세스에 대한 선호도가 5점 척도 기준으로 약 3.3 즉, 보통보다 조금 높

있던 것에 비해 다소 높은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지지도는 앞서 오픈엑세스에 대한 인지도 조사의 긍정적 답변인 64.7%인 것보다 약 10%정도 높은 것으로서 오픈엑세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지는 않지만 설문에서 제시된 오픈엑세스의 기본적 개념에는 지지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오픈엑세스를 지지하는 이유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서 매우 지지한다는 응답자 중 28명, 지지하는 편이라는 응답자 중 26명, 보통이라는 응답자 중 7명, 지지하지 않는다고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중 3명이 응답하였다. 매우 지지한다 혹은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들의 지지 이유는 주로 정보접근과 학문의 발전, 논문 및 학술지의 질적 수준 제고, 학자의 연구경력과 관련된 측면이 많았다. 이중에서 가장 많은 응답자들(36명)이 밝힌 이유는 학술연구성과는 모든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응답에는 학술정보 공유, 학술연구의 공공성, 지식의 공공성, 학술지의 공공성, 정보접근의 평등성, 정보독점의 학문발전 저해, 정부출연기관의 학술지 무료공개는 당연함, 학술지 게재 자체가 연구결과의 공유를 위한 것임, 카피레프트 지지 등과 같은 용어가 빈번히 등장하였다. 이들은 학술연구성과물이 자체적으로 공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것을 수록한 학술지를 모든 사람에게 공개해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두 번째로 많은 응답자들(12명)이 밝힌 이유는 모든 사람보다는 많은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픈엑세스를 지지한다고 것이다. 이들의 응답에는 주로 많은 연구자의 이용으로 인한 연구활성화, 전문가간 교류활

성화, 학문발전 등의 용어가 빈번히 제시되었다. 또한 투명한 논문투고 과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응답도 있었다. 앞서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픈엑세스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논문이나 지식의 공공성, 정보접근의 평등성 등의 개념에 주목했다면, 두 번째 유형의 지지자들은 오픈엑세스가 학문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는 수단적 가치에 주목한 것이라고 보인다. 또한 인용빈도를 높일 수 있다(3명)거나 연구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1명)는 학자의 연구경력개발과 관련하여 오픈엑세스를 지지한다는 경우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학술지 인지도도를 높일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2명)도 있었다.

오픈엑세스에 대한 지지도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7명)엔 학술지 발행의 재정적 측면을 고려할 때 하나의 방식으로만 통일하는 것은 어렵다거나 독자와 발행인간 출판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재정적 건전함을 유지한다, 인지도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오픈엑세스를 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유료서비스이어야 한다, 학회의 공공성과 보편성은 인정하지만 어느 정도는 정보가 제한되어야 한다, 연구자가 증가하여 경쟁상황이 되면 다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학술지의 질적 수준유지를 위해서, 오픈엑세스에 대하여 잘 모름 등으로 다양하게 응답하였다.

오픈엑세스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3명)에는 학술지 발간에 재정적 도움이 안되며 저자의 의도와 무관한 인용과 이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오픈엑세스 정신에는 찬성하지만 발행기관의 재정상 유료화가 불가피하다는 점, 지적인 저작물에 대한 공짜심리는 말이 안 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하였다.

### 4.3 오픈엑세스에 대한 태도

4.3.1 상용DB에서 원문서비스 하지 않는 이유  
 등재지 중 상당수의 학술지가 상용DB를 통한 원문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술지는 이러한 상용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학술지 편집(발행) 위원은 학술지 발행기관의 이러한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구성원이라고 볼 수 있다. 발행기관이 어떠한 이유로 학술지의 상용서비스를 하지 않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회 임원직으로서 그 이유에 대하여 응답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선행연구 및 국내 학술지 출판환경을 고려하여 학술지의 공유성, 인용률 증가, 학술지 평가, 저작권료 수입, 국제적 분위기, 원로의 추천 등 6개로 제시하고 이들 항목에 대하여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그 결과 학술논문의 공유성과 인용률 제고를 위해서라는 항목에는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가 각각 78.8%로 매우 높았다. 다음으로는 응답자의 학문분야에서 오픈엑세스와 관련한 용DB에 제공하지 않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분위기도 학술지를 상 것으로 보인다(48.2%).

상용DB로부터 제공받는 학술지 이용에 대한 저작권료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면 발행기관의 재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면 저작권료는 상용DB를 통한 서비스 여부에 중요한 요인이 아닐 것이다. 저작권료 수입이 학술지 발행기관의 재

정에 도움이 될 정도는 아니므로 상용DB 서비스를 하지 않는 것인지를 질문한 결과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모두 40.0%였다. 그러나 그렇지 않거나 매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도 29.4%였다.

한국연구재단은 국내 학술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등재 및 등재후보지를 선정된 뒤 지속적인 평가를 통하여 학술지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1년 7월 현재 등재지 계속평가를 위한 항목에는 학술지 논문의 온라인 제공여부가 100점 만점 중 7점으로 배점되어 있다.<sup>1)</sup> 이 항목에서 7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발행기관 홈페이지에서 창간호부터 무료로 제공해야 하며, 영리업체를 통하여 3년분 이상 유료로 제공할 경우 2점이다. 이는 10점이 배점된 학술지 정시발행 여부 이외에 체계평가 항목 중에서 배점이 가장 높은 것으로서 학술지 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술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한 것도 상용DB를 통한 유료원문서비스를 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조사결과 학술지 평가가 상용DB에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라고 응답한 경우는 24.7% 정도였다. 오히려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훨씬 더 많은 45.9%였다. 또한 해당 분야의 권위 있는 원로의 추천으로 상용DB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도 극히 적은 12.9%에 불과하였다(〈표 3〉 참조).

1)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학술지 논문이 유료 혹은 무료로 온라인에서 제공되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발행기관 홈페이지에서 창간호부터 무료로 제공될 경우 7점, 기관 홈페이지에서 최근 3년분 이상 무료로 제공될 경우 5점이다. 또한 발행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3년분 이상 유료로 제공될 경우 5점, 영리업체를 포함한 외부기관을 통해 3년분 이상 무료로 제공될 경우 5점, 외부기관(영리업체 포함)을 통해 3년분 이상 유료로 제공될 경우 2점이다. 원문이 해당 기관 홈페이지나 외부기관을 통해 1~2년분 유료 혹은 무료로 제공되거나, 초록이 기관 홈페이지나 외부기관을 통해 1~2년분 제공될 경우 1점이다. 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0점이다.

〈표 3〉 상용DB에서 원문서비스 하지 않는 이유

(응답자수(%))

이유	응답결과	매우 그려함	그런 편임	보통	그렇지 않은 편	매우 그렇지 않음
학술논문은 모든 사람이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		47(55.3)	20(23.5)	11(12.9)	3(3.5)	4(4.7)
상용 DB를 통하여 서비스하면 지불가능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어 인용률 낮아지기 때문		47(55.3)	20(23.5)	11(12.9)	3(3.5)	4(4.7)
상용DB를 통한 유료서비스 시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기 때문		7(8.2)	14(16.5)	25(29.4)	21(24.7)	18(21.2)
상용 DB로부터 받는 저작권료 수입이 학술지 발행기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기 때문		15(17.6)	19(22.4)	26(30.6)	11(12.9)	14(16.5)
오픈엑세스와 관련한 해당 학문분야의 국제적 분위기		21(24.7)	20(23.5)	30(35.3)	10(11.8)	4(4.7)
우리 학문분야 권위 있는 원로의 추천		3(3.5)	8(9.4)	24(28.2)	18(21.2)	32(37.6)

6가지 항목에 대한 응답결과를 최소값 1과 최대값 5점으로 하여 평균값을 구하여 중요도를 점검한 결과 학술논문을 무료로 이용시키기 위하여 4.2, 이용 및 인용률 확대 4.2, 국제적 분위기 3.6, 저작권료 수입 3.1, 한국연구재단 평가 2.6, 원로의 추천 2.2 순으로 나타났다.

교차분석 결과 ‘권위있는 원로의 추천’은 응답자수가 적었던 농수해양학, 예술체육, 복합학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5개 분야와 출판기관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p < 0.05$ ). 우선 학문분야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자연과 학과 공학 분야는 원로의 추천이 영향력 있는 요인이 아니라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63.6%와 72.8%로 다른 분야에 비해 높았으며, 인문학과 의약학 분야는 그보다 조금 적은 50%였다. 그러나 사회과학 분야 응답자의 35.7%는 원로의 추천이 학술지의 상용DB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응답하여 다른 분야와 차이를 보였다.

또한 출판기관 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비영리 학회에 속한 편집인들은 원로의 추천이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고 응답한 경우가 69.1%로 매우 높았다. 그러나 대학에서 발간되는 학술지와 정부산하 기관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경우 보통이기에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특히 정부산하 기관 발행 학술지 편집인들은 원로의 추천이 영향력 있는 요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7.5%로 비영리학회의 편집인보다 약 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 4.3.2 원문공개 채널

국내의 오픈엑세스 학술지는 첫째는 발행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단독으로, 둘째는 무료원문서비스 기관을 통하여 관련분야 학술지와 함께 원문을 공개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다. 학술지 원문을 공개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도 조사결과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64.7%)가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표 5〉 참조). 이는 원문서비스기관을 통하여 접근가능성도 높으면서 발행기관 홈페이지에도 원문을 공개하여 회원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표 4〉 비상용서비스 이유 - 권위있는 원로의 추천

(응답자수(%))

원로추천 때문		매우 그러함	그런 편임	보통	그렇지 않은 편임	전혀 그렇지않음	전체
학문 분야	인문	1(5.0)	1(5.0)	8(40.0)	4(20.0)	6(30.0)	20(100)
	사회	0(0)	5(35.7)	6(42.9)	2(14.3)	1(7.1)	14(100)
	자연	0(0)	1(9.1)	3(27.3)	1(9.1)	6(54.5)	11(100)
	공학	0(0)	2(18.2)	1(9.1)	4(36.4)	4(36.4)	11(100)
	의약학	2(9.1)	0(0)	9(40.9)	8(36.4)	3(13.6)	22(100)
	계	3(3.8)	9(11.5)	27(34.6)	19(24.4)	20(25.6)	78(100)
발행기관 유형	비영리 학회	1(1.5)	5(7.4)	15(22.1)	16(23.5)	31(45.6)	68(100)
	대학 내 기관	1(11.1)	1(11.1)	5(55.6)	2(22.2)	0(0)	9(100)
	정부 산하기관	1(12.5)	2(25.0)	4(50.0)	0(0)	1(12.5)	8(100)
	계	3(3.5)	8(9.4)	24(28.2)	18(21.2)	32(37.6)	85(100)

〈표 5〉 원문공개채널에 대한 의견

공개채널	응답결과	응답자수(명)	백분율(%)
발행기관 홈페이지		18	21.2
무료원문서비스기관		12	14.1
위의 두 가지를 병행		55	64.7
전체		85	100

응답자들이 편집인으로 있는 학술지의 원문서비스 유형을 묻는 질문에서 36.5%(31명)는 발행기관 홈페이지에서만, 12.9%(11명)는 무료 원문서비스기관을 통해서만, 47.1%(40명)는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발행기관 홈페이지에서만 원문을 공개하고 있는 경우(31명)와 무료원문서비스기관에서만 원문공개하거나 동시에 발행기관 홈페이지에서도 원문서비스하는 경우(51명)로 구분하여 원문공개 채널 선택 이유 및 장애요인, 향후 서비스 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우선 홈페이지에서만 원문을 공개하고 있다는 응답자들의 경우 그 이유로 연구자들이 쉽게 원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77.4%). 이에 비해서 적절한 무료원문서비스 기관의 부재나 학술지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경우는 각각 약 10%에 불과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일부 임원들이 반대했다는 응답이 있었다(〈표 6〉 참조).

〈표 6〉 홈페이지에서 원문공개하는 이유

이유	응답결과	응답자 수(명)	백분율 (%)
적절한 무료원문서비스 기관 부재		3	9.7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 위해		3	9.7
연구자들이 쉽게 원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4	77.4
기타		1	3.2
합계		31	100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공개하는 경우의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서는 규모가 큰 DB에서 함께 검색되지 않음으로써 논문 이용률이 저하되는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18명, 58.1%)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술적 어려움(5명, 16.1%), 비용문제(4명, 12.9%), 기타(4명, 12.9%) 순으로 응답하였다. 기타 응답자 중 3명은 어려움이 없다고 하였으며, 1명은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향후 홈페이지를 통한 원문서비스 지속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22명, 71%)가 아니라고 응답한 경우(9명, 29%)보다 훨씬 많았다. 향후에 홈페이지를 통한 서비스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경우 바람직한 서비스 방법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관련 분야 무료원문서비스 기관을 이용하여 학술지들을 모아서 통합검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3명) 혹은 발행기관 홈페이지에서도 공개하면서 통합검색도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5명)으로 서비스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 외 1명의 응답자는 상용 DB에서 원문서비스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무료원문서비스기관에서 원문을 공개하는 이유에 대하여 대다수 응답자(72.5%)는 홈페이지에서만 원문을 공개하는 것보다는 무료원문서비스기관을 통하여 공개하면 이용가능성을 훨씬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에 비하여 자체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하는 것보다 무료원문서비스기관에서 원문을 공개하는 것이 재정적 기술적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응답한 경우(13.7%)와 무료원문서비스기관에 대한 신뢰 때문(5.9%)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매우 적었다. 기타 응답자들 중에서 의견을 밝힌 경우 가능한 모든 곳에서 원문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표 7〉 참조).

〈표 7〉 무료원문서비스기관에서 원문공개하는 이유

이유	응답결과	응답자 수(명)	백분율 (%)
효율성(재정적, 기술적)		7	13.7
이용가능성 제고		37	72.5
신뢰		3	5.9
기타		4	7.8
합계		51	100

무료원문서비스기관을 통한 원문공개시 어려움에 대하여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들은 서비스 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렵다(30명, 58.8%)고 하였고, 서비스 기관에 대한 신뢰 문제(5명, 9.8%)나 원문공개 지체(7명, 13.7%)라고 응답한 경우는 비교적 적었다. 기타 응답자들은 이용자의 접근 제한, 다양한 독자에게 제공되지 못함, 이용가능성 저하, 학술논문예의 접근성 제한 등 대체로 접근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다(4명). 그 외에 서비스 기관은 첨부자료 게시 등 출판형식의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기 힘들다고 지적한 응답자도 있었으며, 어려움이 없다(3명)고 답한 경우도 있었다.

향후 무료원문서비스기관을 통한 원문공개 지속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원문서비스를 계속하겠다는 응답자들보다 약 20%정도 많은 94.1%(48명)가 지속하겠다고 응답하였다.

#### 4.4 발행기관의 오픈액세스 선택 영향 요인

학술지 발행기관이 오픈액세스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앞서 응답자들이 편집위원으로 일하는 개별 발행기관의 학술지 비상용화 이유에 대하여 편집인으로서의 의견을 조사한 것이라면 이 질문은 개인 연구자로서 일반적인 학술지 발행기관의 오픈엑세스 선택시 영향요인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다. 학술논문의 상용화에 대한 반대, 이용 및 인용률 증가, 발행기관의 경제적 여유, 원로의 추천, 국제적 분위기, 학술지 평가, 발행기관 임원진의 태도 등 7가지 요인에 대하여 리커트 5점척도를 기준으로 중요도를 체크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이용 및 인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오픈엑세스를 선택한다는 것에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87.0%로 다른 요인에 비해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다음으로는 학술 논문을 상용화하는 것에 반대하기 때문에 오픈 엑세스를 선택한다는 것에도 응답자의 과반수가 조금 넘는 57.6%가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또한 임원진의 오픈엑세스에 대한 인지도 역시 과 반수가 넘는 52.9%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그 외에 해당 학문분야의 국제적 분위기(49.0%),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기준(42.9%), 발

행기관의 경제적 여유(47.1%) 등은 모두 부정적인 응답보다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7개의 요인 중 해당 분야의 권위 있는 원로의 추천에는 부정적인 응답(49.4%)이 더 많았다(〈표 8〉 참조).

응답결과를 최소값 1과 최대값 5점으로 하여 평균값을 구한 결과 해당 학문 분야의 권위 있는 원로의 추천만이 평균값인 3점보다 낮은 2.42여서 중요도가 낮은 요인이었고, 다른 6가지 요인은 모두 3점 이상이었다. 이용률 및 인용률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는 요인은 평균값이 4.26으로 7가지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도가 높은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오픈엑세스와 관련한 해당분야의 국제적 분위기(3.59), 발행기관 임원진의 오픈엑세스에 대한 의지(3.54), 학술논문 상용화에 대한 반대의지(3.52), 학술지 평가기관의 평가점수(3.48), 발행기관의 경제적 여유(3.36)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Xia의 연구(2010)는 연구자들이 오픈엑세스 학술지에 논문을 출판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논문을 광범위하게 이용시키기 위한 것임을 밝혔다. 본 조사에서도 이용률 및 인용률 확대가 다른 요인들보다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내

〈표 8〉 발행기관의 오픈엑세스 선택 영향요인

(응답자수(%))

OA 선택 영향 요인	응답결과					
	매우 그렇함	그런 편임	보통	그렇지 않은 편임	매우 그렇지 않음	
학술논문 상용화 반대	15(17.6)	34(40.0)	19(22.4)	14(16.5)	3(3.5)	
이용 및 인용 확대 의지	37(43.5)	37(43.5)	8(9.4)	2(2.4)	1(1.2)	
발행기관의 경제적 여유	13(15.3)	27(31.8)	28(32.9)	12(14.1)	5(5.9)	
권위 있는 원로의 추천	3(3.5)	9(10.6)	31(36.5)	20(23.5)	22(25.9)	
학문분야의 국제적 분위기	21(24.7)	21(24.7)	33(38.8)	7(8.2)	3(3.5)	
학술지 평가기관의 평가기준	16(18.8)	29(34.1)	26(30.6)	8(9.4)	6(7.1)	
임원진의 OA에 대한 인지도	13(15.3)	32(37.6)	31(36.5)	6(7.1)	3(3.5)	

연구자들에서도 오픈엑세스를 선택하는 이유가 국외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 4.5 분석결과 요약

##### 4.5.1 인지도 및 지지도

설문응답자의 64.7%는 오픈엑세스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는 9.4%였다. 교차분석결과 의약학, 농수해양학, 공학, 자연과학 분야 응답자들이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 응답자들보다 오픈엑세스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더 많았다. 학술지 발행기관에 따라서는 비영리 학회에 소속된 편집인들이 대학 혹은 정부산하기관 학술지 편집인들보다 오픈엑세스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더 많았다.

오픈엑세스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75.2%였으며, 그 이유는 학술연구성과의 공유, 동료연구자의 이용가능성 확대, 연구경력개발 및 학술지 인지도 확장 등이었다.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재정적 문제, 부당한 인용과 이용, 지적 창작물에 대한 공짜심리의 문제점 등이었다.

##### 4.5.2 태도

학술지 발행기관이 상용DB를 통하여 원문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중요순으로 하면 학술논문의 무료이용(4.2)과 이용 및 인용률 확대(4.2), 학문 분야의 국제적 분위기(3.6), 상용DB로부터 받는 저작권료 수입이 적기 때문에(3.1),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점수를 위해(2.6), 해당 학문 분야의 원로의 추천(2.2)이었다.

교차분석 결과 해당 학문분야의 원로의 추천

은 사회과학 분야만 긍정적인 응답이 부정적 응답보다 많았다. 또한 이 요인에 대하여 비영리 학회의 경우 중요한 영향요인이 아니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던 반면 정부산하 기관의 학술지 편집인들은 중요한 영향요인이라고 답한 경우가 더 많았다.

원문공개채널에 대해서는 발행기관 홈페이지와 무료원문서비스기관 양쪽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64.7%). 발행기관 홈페이지에서만 원문을 공개하는 이유로 연구자들이 쉽게 원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77.4%)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른 학술지와 함께 검색되지 않아 이용률이 저하되는 것에 대한 어려움(58.1%)이 있다고 하였다. 향후 홈페이지를 통한 원문서비스를 지속하겠다는 응답은 71%였다.

무료원문서비스 기관을 통하여 원문을 공개하는 이유로는 이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72.5%) 가장 많았으며, 어려움에 대해서는 서비스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58.8%)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응답자의 94.1%는 향후 무료원문서비스기관을 통한 서비스를 지속하겠다고 응답하였다.

##### 4.5.3 발행기관의 오픈엑세스 선택영향 요인

발행기관이 오픈엑세스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학술논문의 이용과 인용 확대 의지, 해당 학술분야의 국제적 분위기, 임원진의 오픈엑세스에 대한 의지, 학술논문 상용화에 대한 반대, 학술지 평가기관의 평가점수, 발행기관의 경제적 여유, 권위 있는 원로의 추천 등의 순으로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논의 및 제언

1) 발행기관 홈페이지에서의 무료공개 문제  
 오픈엑세스는 영미권 학술지의 가격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지만 더 기본적으로는 학술연구성과물의 공유성 즉, 모든 사람이 그 성과물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국내 오픈엑세스 학술지가 평가점수 확보를 통한 학회지원금 확보나 저작권료 수입 등의 실질적인 이유보다는 학술논문은 무료로 이용되어야 한다는 오픈엑세스의 기본적 가치에 대한 동의와 그로써 연구논문이 더 널리 이용되고 인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료공개를 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응답자의 65% 정도는 발행기관 홈페이지와 무료원문서비스기관에서 동시에 원문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원문을 공개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도 21%에 이른다. 발행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원문이 공개되고 있는 학술지의 경우 해당 분야 연구자들에게 쉬운 접근을 제공할 수 있지만 다른 학술지와 함께 검색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이용률 저하와 함께 오픈엑세스를 선택한 이유인 학술성과물의 공유를 실천하기가 쉬운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2) 인지도와 지지도

본 연구의 설문조사대상은 상용DB에 원문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무료로 원문을 공개하고 있는 학술지의 편집인이었다. 즉, 오픈엑세스의 유형구분에 의하면 자유오픈엑세스(libra open

access)는 아니지만 적어도 무료오픈엑세스(gratis open access)에 속하는 학술지들이다. 그런데 이들 학술지의 편집인이라면 학술지의 새로운 출판모델로 논의되고 있는 오픈엑세스 개념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조사결과 이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약 65%에 불과하였고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도 9% 정도였다. 이것은 국내의 무료오픈엑세스 학술지가 전적으로 국제적인 오픈엑세스 출판 동향과 연계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들이 밝힌 오픈엑세스 지지 이유는 지식 및 학술지의 공공성, 정보접근의 평등성 등 오픈엑세스가 지향하는 기본적인 가치들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즉, 국내 오픈엑세스 학술지 발행기관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모델로서 오픈엑세스를 인지하면서 학술논문을 무료공개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지향하고 있는 가치는 동일한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 3) 분야 및 발행기관에 따른 차이

국내외를 불문하고 학문분야별 오픈엑세스 학술지 비율은 상당히 차이가 난다. 즉 의학이나 공학, 자연과학분야는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분야보다 오픈엑세스 학술지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이러한 차이가 편집인의 인식에 있어서도 존재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본 연구에서도 의학이나 농수해양학, 공학, 자연과학 분야 편집인들이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분야 편집인들보다 오픈엑세스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술지 발행기관의 오픈엑세스 선택요인 중 해당 학문 분야의 원로의 추천은 학문분야와 발행기관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이외의 요인 중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문분야별로 오픈엑세스에 대한 인지도는 서로 다르지만 학술지 발행기관이 오픈엑세스를 결정하는 요인은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의 오픈엑세스 학술지 편집인을 대상으로 오픈엑세스에 대한 인지도와 지지도, 지지이유, 상용DB를 통한 서비스를 하지 않는 이유, 원문공개 경로에 따른 어려움과 향후 서비스 방향 등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오픈엑세스 인식연구가 개별 연구자를 대상으로 이루어 졌다면, 본 연구는 학술지 편집진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것은 본 연구가 오픈엑세스에 대한 개인연구자의 인식을 파악하기 보다는 국내 학술지의 오픈엑세스 추진 이유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학술지 발행기관 임원진 중의 한명으로서의 의견일 뿐 학회를 대표하는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국내 오픈엑세스 학술지 현상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이해를 위하여 발행기관을 대표하는 의견을 조사·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학술지 발행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대한 분석도 새로운 학술커뮤니케이션 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여줄 것으로 보인다.

## 참 고 문 헌

- 조종민. 2007. 『오픈엑세스 학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자의 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Austin, Anthony, Maree Heffernan, and Nikki David. 2008. *Academic Authorship, Publishing Agreements and Open Access: Survey Results*.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online]. [cited 2011.6.20]. <[http://eprints.qut.edu.au/13623/1/13623\\_3.pdf](http://eprints.qut.edu.au/13623/1/13623_3.pdf)>.
- Berchum, Marnix van. 2011. *Results of the SOAP Survey: A First Overview of the Dutch Situation*. [online]. [cited 2011.7.20].
- 〈[http://www.openaccess.nl/images/pdf/soap\\_nl.pdf](http://www.openaccess.nl/images/pdf/soap_nl.pdf)〉.
- Brown, Sheridan and Alma Swan. 2007. *Researchers' Use of Academic Libraries and their Services: A Report Commissioned by the Research Information Network and the Consortium of Research Libraries*. Key Perspectives Ltd. [online]. [cited 2011.7.20].
- 〈<http://eprints.ecs.soton.ac.uk/13868/>〉.
- Creaser, Claire et al. 2010. "Authors' Awareness and Attitudes Toward Open Access Repositories." *New Review of Academic Librarianship*, 16(Supplement 1): 145-

- 161.
- Dallmeier-Tiessen, Suenje. 2011. *Highlights from the SOAP Project Survey. What Scientists Think about Open Access Publishing*. [online]. [cited 2011.6.20]. <<http://arxiv.org/ftp/arxiv/papers/1101/1101.5260.pdf>>.
- Hess, Thomas et al. 2007. *Open Access & Science Publishing: Results of a Survey on Researchers' Acceptance and Use of Open Access Publishing*. Ludwig-Maximilians-Universität Munich. [online]. [cited 2011.6.20]. <[http://openaccess-study.com/Hess\\_Wigand\\_Mann\\_Walter\\_2007\\_Open\\_Access\\_Management\\_Report.pdf](http://openaccess-study.com/Hess_Wigand_Mann_Walter_2007_Open_Access_Management_Report.pdf)>.
- Kennan, Mary Anne. 2007. "Academic Authors, Scholarly Publishing, and Open Access in Australia." *Learned Publishing*, 20(2): 138-146.
- Kennan, Mary Anne and Karlheinz Kautz. 2007. "Scholarly publishing and open access: Searching for understanding of an emerging is phenomenon." *ECIS 2007 - The 15th European Conference on Information Systems*, University of St. Gallen, Switzerland, 7-9 June 2007. [online]. [cited 2011.6.20]. <<http://eprints.rclis.org/bitstream/10760/11652/1/ECIS2007.schol.pub.revised.pdf>>.
- Key Perspectives Ltd. 2004. *JISC/OSI Journal Authors Survey Report*. Truro. [online]. [cited 2011.5.20]. <[http://www.jisc.ac.uk/uploaded\\_documents/JISCOAreport1.pdf](http://www.jisc.ac.uk/uploaded_documents/JISCOAreport1.pdf)>.
- Kling, R. and Geoffrey McKim. 1999. "Scholarly Communication and the Continuum of Electronic Publishing."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50(10), 890-906.
- Morris, Sally and Sue Thorn. 2009. "Learned Society Members and Open Access." *Learned Publishing*, 22(3): 221-239.
- Morrison, Heather. 2009. *Scholarly Communication for Librarians*. Oxford: Chandos Publishing.
- Park, Ji-Hong and Jian Qin. 2007. "Exploring the Willingness of Scholars to Accept Open Access: A Grounded Theory Approach." *Journal of Scholarly Publishing*, 38(2): 55-84.
- Park, Ji-Hong. 2007. *Factors Influencing the Adoption of Open Access Publishing*.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Syracuse University.
- Rowlands, Ian and Dave Nicholas. 2005. "New Journal Publishing Models: An International Survey of Senior Researchers." *A CIBER report for the Publishers Association and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TM Publishers*. [online]. [cited 2011.4.28]. <[http://www.ucl.ac.uk/ciber/ciber\\_2005\\_survey\\_final.pdf](http://www.ucl.ac.uk/ciber/ciber_2005_survey_final.pdf)>.
- Rowlands, Ian, Dave Nicholas, and Paul

- Huntingdon. 2004. *Scholarly Communication in the Digital Environment: What Do Authors Want?* London: Ciber. [online]. [cited 2011.4.20]. <<http://www.ucl.ac.uk/ciber/ciber-pa-report.pdf>>.
- Schroter, Sare, Leanne Tite and Richard Smith. 2005. "Perceptions of Open Access Publishing: Interviews with Journal Authors." *British Medical Journal*, 330: 756-759.
- Swan, Alma and Sheridan Brown. 2004. "Authors and Open Access Publishing." *Learned Publishing*, 17: 219-224.
- Swan, Alma and Sheridan Brown. 2005. *Open Access Self-archiving: an Author Study*. Key Perspectives Limited. [online]. [cited 2011.4.20]. <<http://citeseerx.ist.psu.edu/viewdoc/download?doi=10.1.1.112.5048&rep=rep1&type=pdf>>.
- Warlick, Stefanie E and KTL Vaughan. 2007. "Factors Influencing Publication Choice: Why Faculty Choose Open Access." *Biomedical Digital Libraries*, 2007(4): 1-12. [cited 2011.5.20]. <<http://www.bio-diglib.com/content/pdf/1742-5581-4-1.pdf>>.
- Xia, Jingfeng. 2010. "Longitudinal Study of Scholars Attitudes and Behaviors Toward Open-Access Journal Publishing."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61(3): 615-624.